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

안녕하십니까. 2023년 2차 충북청에 합격한 13기 장○○입니다. 우선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 기쁘고 미약할지라도
이 글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[필기] 22년1차(197.5점) - 23년1차(232.5점) - 23년2차(215점)
필기 준비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강을 들었습니다. 확실히 인강이 경찰시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엔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의 수업 덕분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법 지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.(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두문자들 잘 숙지하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됩니다!)
공부는 '기본서-기출-요약집-최신판례' 순서로 커리큘럼을 짰고, 시험 약 2달 전부터는 '동형모의고사+기출+최신판례'를 계속 반복했습니다. 만약 중간에 모르거나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기본서를 발췌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.

* 결국 필기 준비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나 어느 정도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, 실력이 필기합격선에 근접했다 싶으면 기출+최신판례를 시험 전까지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. 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서+최신판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(최신 판례는 반드시 시험 직전까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)

-참고-
기본서 위주로 공부- 장점: 개념을 정리하는 뼈대가 튼튼하고 응용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다.
단점: 1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.
기출 위주로 공부- 장점: 빠르게 일정 합격선 근처에 도달 가능하다.
단점: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다소 풀기 어려울 수 있다.

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점 입니다.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[체력] 22년1차(37점) - 23년1차(37점) - 23년2차(39점)
수 십 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체력은 중요합니다. 특히 이번 2차부터 체력 기준이 상향되며 윗몸일으키기 과락을 맞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

저 또한 두 번의 최종불합격 당시 '필기만 붙으면 어떻게든 되겠지'라는 생각에 필기 합격 후부터 체력을 준비하다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
이후 체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기보다 체력을 더 중시했을 만큼 체력준비를 열심히 했고,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 등수가 상승했습니다. 여담이지만 저는 직전 시험의 최종불합격으로 인해 분노의 운동을 하며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

* 제가 생각하는 가장 향상시키기 어려운 종목은 '악력, 100미터 달리기'입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살을 빼거나 꾸준히 하면 눈에 보일 정도로 기록이 향상되었습니다. 악력운동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필기 붙고 체력 준비하실 때 한 층 수월하실 겁니다.

[면접]

면접 학원과 면접 스터디를 모두 해봤지만 결론은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.
필기와 체력 준비를 하며 끝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고 무엇보다 면접 당일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본인이 살아온 경험, 가치관, 솔직함, 씩씩한 태도만 준비를 잘 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* 면접 대답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답변이 꼬일 수 있고, 면접관 분들께서 거짓말을 하는지 기가 막히게 캐치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층 씩씩하고 자연스럽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

[마무리]

공부를 하며 외롭고 힘들었지만, 힘들 때마다 가족, 친구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.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2차 시험을 보기 전 저와 같은 감정을 겪던 친구에게 해준 말처럼 외로우면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러니 끝까지 포기 말고 항상 응원합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